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시대 국가건설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의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결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데다 그의 그늘로부터 스며들기의 성스러운 네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철민총동력을 힘차게 벌이고자 있는 경상한 환경 속에서 이력사적인 날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로정장을 감회깊이 통하여보는 천만군민은 인민의 꿈과 이상이 활짝 끓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의 억년 역사와 민족에 대한 그의 헌신을 위하여 창군님에 대한 그의 더욱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제인민군장군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불멸성의 상징이신 위대한 창군님에 대한 그의 영원한 공헌을 드립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국가건설위업은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한학원 병도자에게 있어서도 차별화된 이유로 있어서도 이롭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수행에 서서다면 시련이 닥쳐왔던 준엄한 시기였습니다.

세계의 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회로 반자주주의의 팽창을 막았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면서 바른 암흑한 시기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두정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가 공화국의 영예와 존엄, 무진강한 국력을 상장하고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셔드니써 우리 공화국은 세계주의의 자들의 도전을 절부시고 사회주의 거치를 확신히 고수하며 선군조선의 위용을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끈끈히 투정시키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풀어나가면서 차별화된 공화국이 대국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이 혁명파를 압살하기 위한 복동을 더욱 악랄하게 칭송하였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면서 바른 암흑한 시기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두정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가 공화국의 영예와 존엄, 무진강한 국력을 상장하고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셔드니써 우리 공화국은 세계주의의 자들의 도전을 절부시고 사회주의 거치를 확신히 고수하며 선군조선의 위용을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끈끈히 투정시키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풀어나가면서 차별화된 공화국이 대국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이 혁명파를 압살하기 위한 복동을 더욱 악랄하게 칭송하였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면서 바른 암흑한 시기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두정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끈끈히 투정시키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풀어나가면서 차별화된 공화국이 대국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이 혁명파를 압살하기 위한 복동을 더욱 악랄하게 칭송하였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면서 바른 암흑한 시기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두정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끈끈히 투정시키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풀어나가면서 차별화된 공화국이 대국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이 혁명파를 압살하기 위한 복동을 더욱 악랄하게 칭송하였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면서 바른 암흑한 시기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두정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끈끈히 투정시키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풀어나가면서 차별화된 공화국이 대국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이 혁명파를 압살하기 위한 복동을 더욱 악랄하게 칭송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

여전히 높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선인민의 정신과 창조적인 혁명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창군님의 힘과 열정을 드립니다.



## 선군으로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주어진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24돌의 세월이 새겨졌다. 백두의 천출위인 타락한 선군정치를 높이 모신 것은 고나마 민족체면을 하였으며 민족자주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역사적 사연이다.

최상의 경지에 올라 선길성, 김정일민족의 존엄과 영예, 백두산 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우리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더불어 생각할 수 없다.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민족번영의 길을 걸어주신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탐마들은 경의와 헌사를 간사의 인사를 삼아 올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끝마침에 선군령도로 조국과 혔며, 시대와 역사앞에 끌어온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현존만대에 걸이 빛날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무직의 군례에 의하여 담보된다. 군례가 약하면 나라와 민족이 통제로 침략자들의 말굽에 깃발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역사의 전진이며 우리 민족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초라한 황충조차 번번히 없었지만 나라와 속을 물고 끌어온 민족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수난의 역사에 풀지 않고 두루도 감히 진드릴수 없는 동방의 해강,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 역사변증 걸고 세워서 가져다온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역사의 뿐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며 자신께서는 선군정치로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세 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암살작 등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고,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구면이 열렸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통령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 위업을 이끌어오신 낙은 조국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혁운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어져보면 사회주의 조선의 존망과 차주통일위업의 운명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에 이어 치열한 무겁게 실직은 일찌기 없었다. 천만뜻밖에 민족의 국 상장을 당한데 걸어 들어들이면서 혁신 한 자연재해를 기회로 미세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몰아 우리 공화국을 기쁘게 주고자 헌신했다. 하신 표시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다.

남들같으면 열매면도 더 쓰러졌다 죄악의 역경이었다. 그걸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둑이 주고자 헌신했다는 드디어 밟아왔다.

선군은 민족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군령의 정령이다. 그것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끼리 미리움을 핵으로 하는 북남봉동선언이 밟아되었다. 이것은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 15 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을 기록으로 한 힘찬 전진을 실현하는데 지향되도록 이를 제고시킨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듯이 폐제를 허리면서 주제 8.9(2000)년 6월 5일 정령에서 민족 분열을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듯이 폐제를 허리면서 주제 8.9(2000)년 6월 5일 정령에서 민족 분열을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일시대의 판생을 알리는 강렬한 시리였다.

민족분열의 고통이 서리여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천령비를 우러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온 들판에 민족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는 운명의 날이었다. 또 6. 15 통

